

MBC 특별생방송 "선택 2002,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다음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모두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에 정말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
니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
그리고 환경과 문화의 수준이 있는 선진문화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질서를 앞장서 주도하는 아시아의 중심국가,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개의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통합 즉 동서화합, 그리고 정치개혁입니다.

부정부패의 청산도 경제의 성공도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동서가 화합해야 노사화합도 이룰 수 있고, 남북 간의 화합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될 때라야

비로소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겨뤄 승리할 수 있는 선진국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동서화합부터 먼저 해결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발짝도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첫번째 과제가 정치의 동서구도를 해체하고,

우리 정치를 정책구도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저는 대통령에 되려는 것입니다.

비전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전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말하고, 그리고 진실로서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90년 3당합당 때 저도 따라갔더라면 3선 4선 편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아니라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함께 갔던 사람과 운명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화합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4번씩 떨어지면서 도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도가 동서대결구도가 될 것이냐, 동서화합의 구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선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동서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원칙이 승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또 역사에게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